BTS 뷔 '솔로 파워'

'레이오버' 발매일 167만장 판매
K팝 솔로가수 역대 최고 기록
1~3위 모두 방탄소년단 차지
65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정상

그룹 방탄소년단(BTS) 뷔〈사진〉가 발표한 첫 공식 솔로 앨범 '레이오버'(Layover)가 발매 당일 167만장이 팔려나가며 K팝 솔로 가수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한터차트에 따르면 전날 발매된 '레이오버'는 하루 동안 167만2천138장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발매 당일 밀리언셀러에 오른 것과 동시에, K팝 솔로 가수 역대 첫 주 판매량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 치웠다.

이로써 역대 K팝 솔로 가수 첫 주 판매량 1~3위는 뷔에 이어 지민 '페이스'(FACE) 145만장과 슈가 'D-데이'(D-DAY) 128만장까지 모두 방탄소년단이 차지하게 됐다.

통상 발매 첫 주 판매량은 가수의 인기와 팬덤의 결집력을 가늠하는 척도로 받아들여진다.

앨범 타이틀곡 '슬로우 댄싱'(Slow Dancing)은 이날 오전 7시 현재 전 세계 75개국 아이튠즈 '톱 송 차트' 1위에 올랐다. 또 앨범 '레이오버'는 전 세계 65개국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했다.

'레이오버'는 뷔의 새로움을 조명한 솔로 앨범으로 팝 알앤비(R&B) 장르를 토대로 그가 가진 특색과 감성이 버무려졌다.

/연합뉴스

개그우먼 장도연 '라디오스타' MC 합류

코미디언 장도연〈사진〉이 MBC 장수 토크쇼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의 MC로 합류한다.

MBC는 "장도연 씨가 '라디오스타'의 새 MC로 확정됐다"며 "구체적인 합류 스케줄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KBS 22기 공채 코미디언 출신인 장도연은 2012년 '코미디빅리그'로 이적해 주축 멤버로 활약했다. 예능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개는 훌륭하다', '러브캐처' 등에서 MC를 맡기도 했다.

현재 '라디오스타'는 김국진, 김구라, 유세윤과 함께 매주 다른 스페셜 MC가 게스트들을 맞고 있다. 2019년부터 홍일점 MC로 활약해온 안영미는 지난 4월 출산 준비로 하차했으며, 다시 돌아올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연합뉴스

"12년 한우물 파니 알아봐 주시네요"

넷플릭스 시리즈 '마스크걸' 한재이

외모 컴플렉스 가진 여주인공
유일하게 이해해주는 친구역
드라마·영화 조연·단역으로 필모
"조급함 없이 우직하게 해 나갈 것"

타고난 끼와 흥이 넘치는 김모미는 어린 시절부터 무대 위에서 가장 빛이 나던 사람이었다.

사람들의 박수와 함성이 좋아 가수가 되기를 꿈꿨으나, 나이를 한 살씩 먹을수록 '귀엽다'는 칭찬은 '못생겼다'는 조롱으로 바뀐다.

동급생들은 그를 무시하고, 자신을 낳아준 엄마마저 "그 얼굴로 가수를 하냐. 꿈 깨라"며 날카로운 말로 그를 할퀸다.

외모 때문에 한없이 초라하고 외롭게 자라온 김모미. 그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춘애(한재이·사진) 뿐이다.

최근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속사 앤드마크 본사에서 만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마스크걸'의 배우 한재이(32)는 "춘애에게 모미는 거울 같은 존재였다"며 "나와 같은 모미를 보면서 춘애는 용기를 얻었고, 나와 같은 사람이라서 모미를 더욱 지키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못생긴' 얼굴로 태어나 비슷한 학창 시절을 보낸 모미와 춘애는 성형수술을 한 후 '예뻐진' 얼굴로 같은 바에서 쇼걸이 된다.

예뻐지고 싶었던 과거, 사람들에게 받았던 상처, 새로 태어나고 싶은 마음까지 살아온 기억이 너무나 닮아있는 둘은 서로 쌍둥이 같다는 동질감을 느낀다.

"춘애는 얼굴만 예뻐진다면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죠. 바에서 일하는 동안은 원하던 관심도 받고, 예쁘다는 말도 들어서 행복했을 거예요. 행복이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요."

춘애는 고등학교 시절 자신을 '현금 인출기' 취급하며 돈을 뜯어 갔던 부용(이준영)을 성인이 돼서 다시 만난다. 과거와 달리 '예뻐진' 춘애는 학창시절 짝사랑했던 부용과 연애를 시작한다. 그러나 고등학생 때와 달라진 게 없는 부용은 춘애의 집에 얹혀살며 그가 베푸는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 나중에는 급기야 주먹까지 휘두른다.

한재이는 "처음 춘애는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부용에게 다가갔던 것 같다. 그러다 막상 자기 때문에 폐인이 된 것 같은 부용이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다"며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 한 춘애는 지나치게 헌신적이고, 책임감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2012년 영화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으로 데뷔한 한재이는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호텔 델루나', '멜로가 체질', '너를 닮은 사람' 등에서 조연과 단역을 거치며 필모그래피를 쌓아왔다.

한재이는 "이번 작품을 통해 제 얼굴을 조금이나마 알린 것 같다"며 "'마스크걸'은 제 마스크와 같은 작품"이라고 웃어 보였다.

"지난 11년 동안 주변에서 앞서나가는 배우들을 보며 조급했던 적도 있었죠. '우직하게 내 할 일을 하다 보면 언젠간 주변에서도 알아봐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마스크걸' 후에도 우직하게, 해오던 그대로 해나가고 싶어요." /연합뉴스

'소옆경2' 유종의 미… '아라문의 검' 출발 순조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
9.3%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
'아스달 연대기' 속편 5%로 시작

tvN 드라마 '아라문의 검'

소방과 경찰의 합동 작전을 다룬 금토드라마 '소방서 옆 경찰서 그리고 국과수'(이하 '소옆경2')가 자체 최고 시청률로 종영했다.

1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SBS가 전날 오후 9시 50분 방송한 '소옆경2'는 9.3%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 드라마가 시청률 9%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마지막 방송에서는 직전 회차에 숨진 주인공 진호개(김래원 분)의 부검 이후 이야기를 다뤘다.

송설(공승연)은 진호개의 장례식에 나타난 사이코패스 살인자 '덱스'에게 협박당해 그의 아지트로 끌려가 위기에 빠지는데, 그 순간 죽은 줄 알았던 진호개가 나타나 '덱스'를 제압하고 송설을 구해낸다.

사실 진호개는 '덱스'를 잡기 위해 사망한 것으로 위장해 함정을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진호개의 손에 붙잡힌 '덱스'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소옆경2'는 경찰과 소방의 공조로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고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로 작년 연말 방송된 '소방서 옆 경찰서'의 속편이다.

한편 tvN이 9일 밤 9시 20분 방송한 판타지 드라마 '아라문의 검' 1회는 5.0%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첫 방송에선 타곤(장동건)이 아스달의 여러 부족을 장악하며 세력을 확장한 끝에 은섬(이준기)이 이끄는 아고 연합에 전쟁을 선포하는 과정이 그려졌다. 병력이 열세인 아고 연합은 전쟁에서 이내 수세에 몰리는 데다 내부에 첩자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긴장감이 고조됐다.

'아라문의 검'은 2019년 방송된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속편으로, 주요 등장인물과 세계관을 이어받았다. /연합뉴스